

“진짜 연예인과 춤추는 것 같아요”… 이수만도 끝 빠진 5G

〈SM엔터테인먼트 회장〉

‘U+5G 체험존’ 가보니

오픈 열흘 째 3만여명 다녀가
AR·VR·게임 존 짧은 층 인기
설명하지 못한 화질 아쉽지만
5G 요금제·단말 지원땐 개선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코앞이다. 5G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감하기는 힘들다.

13일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U+5G 체험존’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는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포함해 5G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난 3일 열린 체험존은 오픈 열흘 째인 12일 기준, 누적 3만1000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 일 평균으로는 3000명을 넘는다.

체험존에서 가장 눈에 띠는 곳은 증강현실(AR) 서비스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연예인이 눈앞에서 보듯 3D로 나타난다. 옆에 마련된 AR 스튜디오에서는 지정된 공간에서 마치 현실에서 만나듯 AR 속 연예인과 함께 춤추고, 사진을 찍



‘U+5G 체험존’ 전경(왼쪽)과 U+5G 체험존의 증강현실(AR) 서비스. 직원이 AR 스튜디오에서 화면 속 연예인과 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을 수도 있다.

AR 서비스를 체험한 20대 대학생 고개은은 “AR 서비스를 통해 ‘짤’ 같은 것을 만들면서 친구들과 놀기 좋을 것 같다”며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 5G 체험존을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상현실(VR)을 즐길 수 있는 ‘U+VR’ 존에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HMD)를 쓰고, 평소에 보고 싶던 ‘태양의 서커스’를 선택하자 눈앞에 서커스 공연이 펼쳐졌다. 서커스 배우가 공연 중 칼을 겨누는 모습이

생생해 몸을 움찔하기도 했다. U+VR에서는 태양의 서커스뿐 아니라 연예인과 1대 1데이트, 웹툰, 게임 속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다만, 화질이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5G 대신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간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다”며 “향후 5G 요금제와 단말이 나오면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옆 부스의 게임 존에서는 ‘LG V50’의 듀얼 스크린을 이용한 게임을 즐길 수 있

다. ‘리니지2 레볼루션’과 ‘블레이드소울’과 같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R RPG)을 실행하니 위쪽에는 게임을, 아래 화면에는 조이스틱이 있어 게임 캐릭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선보인 U+프로야구, 골프 등의 콘텐츠도 5G가 상용화되면, 7가지 기능이 추가로 도입될 전망이다. ‘야구 경기장 중인’을 체험해 보니 원하는 경기장을 최대 3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었다.

체험존 시연을 진행하는 LG유플러스

직원은 “VR·AR 콘텐츠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며 “나이드신 분들은 간혹 이용 방법을 어려워하기 하지만 관심 있게 들려보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험존에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방문해 VR·AR 콘텐츠를 즐기기도 했다. 전시장을 둘러본 이 회장은 “재밌었다”며 체험 소감을 짧게 말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 이 같이 VR와 AR를 포함한 실감형 미디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5G의 조연결·조제지연·조고속 특징 때문이다. SM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의 5G 협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G유플러스는 5G를 대비해 고화질 영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를 볼 수 있는 ‘U+아이돌라이브’를 출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5G가 활성화 되면, SPF초·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의 VR·AR 콘텐츠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일부터 시작된 U+5G 체험존은 14일 까지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다. 30평 크기의 공간으로, 1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김나인 기자 sllnki@metroseoul.co.kr



모델들이 ‘G8 씽큐(ThinQ)’ 사전예약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내일부터 ‘LG G8 씽큐’ 사전예약

이통3사 다양한 할인 이벤트 진행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LG G8 씽큐(ThinQ)’ 예약 판매를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식인 증대리점과 공식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G8 씽큐(128GB)의 출고가는 89만 7600원이다. 뉴 오로라 블랙, 뉴 모로칸 블루, 카민 레드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신한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SKT 리йт-플랜’과 ‘텔로 카드’ 등을 이용하면, 24개월 간 최대 98만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G8클럽’ 이용 고객은 구매 12개월 뒤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고 다음 LG플래그십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에겐 사은품이 제공된다.

KT 고객은 제휴카드 2장으로 2번 할인 받는 ‘카드 더블할인 플랜’을 이용할 경우, 2년간 단말과 통신 요금에서 각각 월 2만원씩 최대 9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KT는 G8 씽큐 사전예약 신청자 중 888명을 추첨해 인공지능(AI) 스피커 ‘기지니 버디’를 증정한다. 온라인 채널인 KT샵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기본 사은품

외에도 LG전자 공기청정기, 코드제로 A 9청소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 U+ 스마트플랜 신한 뷔플러스 카드’를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부 결제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월 최대 2만1000원씩 2년간 총 50만4000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카드를 LG페이로 등록해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에 1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포함하면 최대 60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G8 The 슈퍼찬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LG G8 씽큐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LG V50 씽큐 출시 후 10일 내로 기기를 변경하고 사용 하던 LG G8 씽큐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출고가의 60%만 24개월간 나누내고 24개월 후 LG전자 신규 프리미엄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출고가 40%를 보상하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2개 월형을 이용할 경우는 출고가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숍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LG 올레드 55인치 TV, LG 스타일러, LG 공기청정기, 신세계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SKT·삼성, ‘갤S10 5G’ 최고속도 구현

〈2.7Gbps〉

‘5G-LTE결합기술’ 개발·탑재
HD영화 한 편, 6초 만에 다운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5G 신기술을 ‘갤럭시S10’에 장착한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5G-LTE결합기술’ 개발 및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국내에 출시할 세계 1호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에 기본 탑재한다고 13일 밝혔다.

‘5G-LTE결합기술’은 5G와 통합에 블루투스(LTE) 네트워크를 함께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해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이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이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S10 5G를 통해 5G의 1.5기가비피에스(Gbps)와 LTE의 1.15



모델들이 SK텔레콤 ICT 체험관 티움에서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D영화 한 편(2GB 기준)을 약 6초 만에 받을 수 있다.

일반 영상보다 5배 용량이 큰 가상현실(VR) 콘텐츠(10GB 기준)도 약 30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SK텔레콤 출시 모델은 초기부터 2.6G bps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최대 2.7Gbps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향후 출시될 5G폰에도 이 기술이 순차 적용된다.

SK텔레콤은 내달 ‘5GX 체험존’을 전국 30여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고객들은 5G 스마트폰 출시전 체험존에서 AR·VR, 미디어 등 5G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다.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센터장은 “올해 5G 스마트폰 최고속도를 단계별로 경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PG車 규제 폐지에 르노삼성 ‘도넛탱크’ 재조명

트렁크 체감공간 40% 향상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누구라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982년 택시용으로 LPG 차량이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무려 37년여 만이다. 기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업계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르노삼성자동차의 지난해 LPG 차량 총 판매량은 1만2225대를 기록했다. 현재 르노삼성이 LPG용으로 생산하는 모델은 SM5·SM6·SM7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용 차량이 65.3%(7982대)를 차지했다. 이들 모델들은 지난해 각각



르노삼성자동차 개발한 ‘도넛탱크’
/르노삼성자동차

했다. 도넛 탱크는 기존 연료 탱크가 트렁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LPG 차량보다 트렁크 체감 공간을 40% 가까이 향상시킨다. 또한 탱크가 아래에 위치해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으며 내구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르노삼성의 LPe 모델들은 트렁크 바닥 비상용 바퀴 자리에 납작한 형 LPG 탱크를 배치해왔다.

르노삼성의 LPe 모델들은 도넛 탱크와 함께 2.0리터 LPe 엔진, 최신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를 탑재했다. 이 파워트레인의 장점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뿐 아니라 선형 산소 센서, 개선된 인젝터 및 최적화된 배출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초저공해 배출가스 규제(SULEV)까지 민족시킨다.

/정연우 기자 ywj964@